

직업계고 청소년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코호트 비교 및 분석을 중심으로

현 옥 주¹ | 김 지 민^{2*}

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² 연세대학교

* 교신저자: 김지민
(dowoon@yonsei.ac.kr)

초 록

본 연구는 직업계고 청소년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1차 웨이브(2009~2014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2차 웨이브(2019~2024년)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를 활용하였다. 각 코호트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 경험이 청년 초기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고, 두 코호트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1차 코호트는 진로 관련 검사 경험만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2차 코호트에서는 정보 제공 및 안내,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취업박람회 및 졸업생 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교육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차 코호트는 가구소득과 부의 학력만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2차 코호트에서는 가구소득, 부의 학력, 사교육비 지출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체험과 실무연결의 강화, 진로 탐색 기회 확대,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정책·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주요 용어: 가구배경, 진로교육, 안정적 일자리, 직업적응, 잠재성장모형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직업계고 청소년은 일반고 청소년보다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취업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나 낮은 직업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계고 청소년의 가구배경과 경험한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진로교육이 강화되기 전후 코호트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진로교육이 강화된 코호트에서는 정보제공 및 안내,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취업박람회, 졸업생 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교육 경험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가구소득, 부의 학력, 사교육비 지출 역시 노동시장 성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진로교육의 확대에도 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직업계고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하기 위하여 직업체험과 실무연결 중심의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 취업 준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기업·지역사회가 연계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 논문은 2025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후 수정 및 보완된 논문임.

■ 투 고 일: 2026. 01. 28.
■ 수 정 일: 2026. 05. 19.
■ 게재확정일: 2026. 07. 13.

I. 서론

이 연구는 직업계고 청소년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인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호트 비교를 통해 진로교육 정책이 강화된 이후 그 영향이 강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고용 여건은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 취업 경쟁 심화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반정호, 2013).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교육 내 진로교육의 제도적 강화가 지속되어 왔다. 진로교육은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주체적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에는 교육과정 개편과 산학협력 확대 등을 통해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은 직업계고 청소년이다. 직업계고는 일반고와 달리 입학 단계에서부터 특정 직업 분야를 중심으로 계열과 학과를 선택하게 되므로, 학생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진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예를 들어, 하이파이브 포털을 통한 통합적 취업지원 체계 구축, 산학협력 교육모델 확산,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등 직업계고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직업계고가 일반고에 비해 직업교육과 취업 준비에서 보다 명확한 진로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만 2,053명 중 직업계고 학생이 4,714명(39.1%)을 차지하며, 이 중 3,487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교육부, 고용노동부, 20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은 여전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다. 가령,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윤형한, 신동준, 2012; 최동선, 정재호, 2014),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에 직면하며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경험한다(강순희, 2013; 김성남, 하재영, 2018; 안주엽 외, 2019). 이로 인해 상당수가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니트(NEET)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백예은, 정혜원, 2025). 직업계고 청소년이 노동시장 이행을 목표로 설계된 교육을 이수함에도 그 성과가 균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진로교육 경험이 실제 노동시장 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외의 조건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은 마치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경주와 같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청년기 노동시장 이행의 결과가 청소년기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황성수, 김재호, 2015; 오선정, 2017; 현옥주, 변금선, 2025). 청소년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을 겪으며(노혜진, 2012), 장기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은 상용직 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김태완, 이주미, 2018). 이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인적자본 투자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가구배경은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진로정보, 교육 및 훈련 기회, 자격 취득 준비, 취업준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직업계고 청소년의 인적자본 투자는 자격증 취득 개수, 취업지도 경험, 현장체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류지은, 서예린, 2023). 이에 따라 가구배경 또한 일반고 청소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예컨대 자격증 실무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형성, 부모의 사회적 자본을 통한 정보 접근, 초기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의 차이 등을 통해 작동할 수 있다(오선정, 2017; 류지은, 서예린, 2023). 따라서 진로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가구배경을 독립변수로 함께 투입하여 두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구배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공교육 진로교육이 노동시장 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업계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진로교육 정책이 강화되기 이전 시기의 코호트(1989년생)와

강화된 시기의 코호트(1999년생)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효과성과 한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두 코호트를 비교하는 이유는 1989년생 코호트 때의 진로교육이 단편적·비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1999년생 코호트는 진로교육 강화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코호트 간 비교는 진로교육의 제도화 및 내실화가 직업계고 청소년의 노동시장 성과 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단일 시점의 취업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남재욱, 2021). 기존 연구들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진로 이행 유형을 파악하였으나, 주로 단기적이고 양적인 취업 성과에 집중하여 안정적 일자리와 같은 질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류지은, 서예린, 2023; 김수진, 이보미, 2023; 백예은, 정혜원, 2025). 특히, 직업계고 졸업자들은 대졸 취업자에 비해 진로 결정 시기가 빠르고, 직무 능력 습득 기간이 짧아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더욱 중요하다(이덕현 외, 2014)는 점에서 이들의 질적 노동 성과를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이라는 표면적인 성과만을 살핀 연구가 아닌, 직업적응이라는 질적 지표를 포괄하여 취업 여부 이전의 일자리의 질과 주관적 만족도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는 취업을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적응 과정과 결과의 질을 조망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직업계고 진로교육의 효과를 다차원적 노동시장 성과 지표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구배경의 영향력과 이를 완화하는 진로교육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교육은 정보제공 및 안내, 정규 교육활동 및 캠프 경험, 진로상담 경험,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등 학교 교육과정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특히 직업계고에서 이러한 활동은 취업지원 및 노동시장 이행 준비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개별 변수가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취업연계 경험 전반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가 아닌 '출발선이 동일한 달리기'를 지원하고 모든 청소년이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교육 정책의 변화와 직업계고등학교

청소년기는 단순한 진로탐색을 넘어, 개인의 삶의 궤적과 노동시장 진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기이다. 이에 진로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하는 활동이며, 여기에는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직업계고 청소년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진로교육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직업계고는 중등 직업교육단계에서 특정 분야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이는 학생들의 초기 진로 결정과 노동시장 진입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진로교육의 정책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직업계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교육 과정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과거 '실업계고'에서 '전문계고', '특성화고'를 거치며 사회적 낙인 효과 해소와 전문성 강화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안재영, 2023),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산업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진로교육 정책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출발점은 1980년으로, 당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에 진로교육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학교나 교사의 재량에 의존하였다. 이후 1993년 제1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은 점차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진로교육 참여의 확대를 방향을 전환하였다.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제4차 기본계획(2008-2012)부터이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진로체험 및 상담 활성화 과제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활동이 포함되고 국가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 진로교육 5개년 계획(1차)을 통해 진로교육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또한, 2011년 교육부 내 진로 교육 정책과의 신설과 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로 이어지며 진로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체험 기회 확대'와 '청소년 창업·취업 지원'이 구체화되면서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강화는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및 시행으로 완성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외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법적 기반을 갖추었고, 진로체험(직업체험) 활동이 교육과정 내에 공식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6년에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제2차 국가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진로집중학년·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등 진로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직업계고는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직접 이행 비중이 높아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꿈길과 같은 진로체험 플랫폼, 진로센터, 취업처 연계가 강화되어 진로 체험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현장체험형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어 양적·질적으로 풍부해졌다. 진로상담은 진로전담교사제도를 통해 전문성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 아울러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가 강화되면서 직업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며, 취업박람회, 졸업생 멘토링, 취업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제6차(2018-2022) 및 제7차(2023-2027)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AI 기반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진로교육의 내용이 더욱 고도화되었다.

진로교육 정책 변화의 흐름은 학교 진로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각 시대의 정책적 맥락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계고는 진로교육 정책이 실제 취업지원과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교육 정책 활성화 이전의 1989년생과 정책 변화를 경험한 1999년생의 두 코호트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발전 시기 전후에 받은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

청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이다. 생애과정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삶이 역사적 시기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며, 중요한 전환기에서의 경험은 그 발생 시점과 관계망,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Elder,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노동시장 성과는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한 취업 여부를 넘어서 일자리의 질과 직무 전반에 대한 개인의 적응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 일자리는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의 반대 개념으로, 고용 형태와 더불어 소득의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Rodgers(1989)는 불안정 노동을 불확실성, 통제력, 법과 조직 또는 관행에

의한 보호, 소득으로 조작적 정의하였고, Oesch(2003)는 임금, 인센티브 등의 부가 혜택, 노동조합 가입 여부, 직업교육 및 훈련 기회 등에 따라 불안정 노동이 정의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Kalleberg(2009)는 고용이 불안정적이면서도, 예측이 불가하고, 위험한 상태를 불안정 노동이라고 일컬었으며, Kroon과 Paauwe(2014)는 고용의 비지속성, 교육 및 훈련의 비체계성, 노동조합의 낮은 협상력, 저임금에 따라 불안정 노동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안정적 일자리의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나,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불안정 노동을 조작적 정의하였다(백승호, 2014; 이승운 외, 2017). 본 연구에서도 안정적 일자리를 고용, 사회보험, 임금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한편 직업적응론(Theory of Work Adjustment: TWA)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Lofquist와 Dawis(1984)는 직업적응이란 개인이 작업환경과 조화를 성취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Kristof(1996)는 개인-직무적합성(Person-Job Fit)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 성격 등과 직무의 요구사항 간의 일치 정도에 따라 직업적응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직업적응은 개인의 욕구와 작업환경이 제공하는 보상 간의 일치 정도, 개인의 능력과 직무 요구사항 간의 일치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이 직업을 통해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성공적인 직업적응이 이루어진다. 직업적응은 개인의 만족도와 조직의 만족도로 구성되는데, 개인의 만족도는 자신의 욕구가 업무를 통해 충족되는 정도를 뜻하며, 조직의 만족도는 일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으로 측정된다(Greene et al., 2013; Batool & Ghayas, 2020).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는 개인의 만족도를 직업 전반의 만족도로 측정하였고, 조직의 만족도를 전공일치도와 같은 개인의 자격요건 등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전유정, 신원식, 2019; 이해영, 강순희, 2020). 본 연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직업적응을 전공일치도, 업무만족도, 전반적 직업만족도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은 개인의 생산성과 고용주의 채용 결정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시하면서, 청소년기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한다. 우선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인적자본론, 선별이론, 직업탐색이론 등이 있다. 인적자본론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에 따라 취업과 임금수준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의 인적자본은 학력, 자격증, 직업훈련 등이 해당된다. 반면, 선별이론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더 능력 있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직업탐색이론은 개인의 직업탐색활동과 기업의 구인 활동 기간이 실업기간을 결정한다고 설명하며, 구직자의 불완전한 정보, 숙련도, 유보임금, 일자리 미스매칭 등이 취업 소요기간을 장기화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알려진 청소년기는 향후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기로 간주된다(Arnett, 2000). 청소년기는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며 진로 탐색과 직업 선호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개인은 기초적인 학습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의 목표를 결정한다. 또한, 청소년기 진로교육은 인적자본 축적의 기반이 되어, 향후 인적자본 축적 궤도 및 노동시장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아울러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청소년의 교육수준, 직업포부 등을 결정하며, 추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고 있다(Hollingshead, 1949; Miller, 1951). 따라서 이 시기의 인적자본 축적과 환경적 조건은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 청소년기 가구배경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가구배경은 향후 청년기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rooks-Gunn & Duncan, 1997). 기존 연구는 청소년기의 가구배경을 부모의 가구소득, 학력, 사교육비 지출 등 청소년기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구의 상황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낮은 가구소득은 이후 성인기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률적인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Danziger & Ratner, 2010; Johnson & Schoeni, 2011). 더불어 교육수준, 성별, 가구배경, 연령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청년기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왔다(홍서연, 안주엽, 2002; 안준기, 2009; 장효진, 2017; 정세정, 2019).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한 빈곤은 그들의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청년기 고용상태, 근로소득, 근로시간, 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자형, 연보라, 2012; 변금선, 2013; 이다윗, 2018; 최천근, 김복태, 2021; 김덕호, 2021). 또한, 부모의 학력, 직업지위 등과 같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추후 노동시장 성과가 결정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유재은, 2018; 원지영, 2019). 더불어 사교육은 미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에 따라 향후 안정적 일자리 취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연구(노법래, 2013; 이자형, 2015; 전정은, 2025)가 대부분이나, 직업계고 학생이 사교육비가 높다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여 청년 초기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지효, 2018). 그러나 직업계고 청소년에게 가구배경의 영향은 일반고 청소년과는 다소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할 수도 있다. 인적자본론에서 주로 상정하는 교육투자와 노동시장 성과의 연결은 대학 진학 경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초기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직업계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실무역량 강화, 취업 준비와 같은 형태의 인적자본 축적이 보다 직접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소득과 같은 가구배경은 청년의 진학과 취업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계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역시 가구배경과 학교 경험,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황성수, 김재호, 2015; 류지은, 서예린,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계고 청소년에게 가구배경은 단지 소득이나 부모 학력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자격 취득 준비, 직무 관련 교육·훈련 참여, 취업정보 접근,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시간적·경제적 여유 등의 차이로 이어져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직업계고 청소년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구배경이 형성하는 구조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오선정, 2017).

한편 청소년기 가구배경이 향후 청년기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직업적응보다는 직업적합도, 직업적 자기효능감 등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분석하였다(Hu et al., 2020; Koçak et al., 2022). 이들은 종합적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에게 더 나은 직업 기회와 진로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여 높은 직업적합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가족의 사회적 자본이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자녀의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으로 나타나 자녀의 진로 흥미와 동기를 증진시킨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자녀의 미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탐색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

나. 청소년기 진로교육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습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계고 졸업자는 진로 결정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직무능력 습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

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한계가 있다(이덕현 외, 2014). 따라서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하는 진로 관련 활동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직업적합도를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직업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직업계고 청소년은 직업체험이나 진로지도 등을 통해 미래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며,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도윤미, 김귀훈, 2024).

한편 앞서 저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발전하면서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로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학교와 노동시장을 별개로 분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추적조사하는 종단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교육고용패널이나 한국노동패널과 같은 자료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직업계고의 진로교육을 살핀 연구 위주로 살펴보면, 강순희(2013)는 진로와 관련된 경험은 대체로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상담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덕현 외(2014)는 구직상담, 취업정보, 구직지도, 취업알선 등 고등학교에서의 취업지원 만족도가 취업 가능성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탐색, 관계활용, 상담, 능력개발 등의 진로탐색 행동 역시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만기(2014) 역시 교과지원, 직업능력 지원, 진로지도, 취업 등 학교에서 진로 준비를 위한 준비 경험과 그에 따른 만족도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동선과 이종범(2013)은 진로탐색 행동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송선훈 외(2021)의 연구 역시 취업상담, 구직활동지도, 취업처 연계 등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들은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진로동아리, 진로지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청소년기 진로교육이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직장 탐색이나 직업훈련 등의 경험이 자신과 적합한 진로 분야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겨지면서 진로선택에 대한 더 큰 만족도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Messersmith et al., 2008; 노경란, 허선주, 2013; 남미자 외, 2013; 송선훈 외, 2021; 전은정, 최윤정, 2023). 그러나 청소년기 진로교육의 유형별로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신윤범과 원효현(2024)은 직장과 관련된 교육 요인이나 교육 훈련이 추후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전은정과 최윤정(2023)의 연구에서는 진로 관련 교과나 특강, 강의, 설명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교 진로활동(진로, 직업, 취업 상담)은 일자리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계획 수립 등의 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무적합성 형성에 기여하여 직업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박가열, 2009; 유한구, 박화춘, 2021; 김민정 외, 2023). 특히 진로 계획의 명확성과 직업계고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안정적인 노동과 직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이수용 외, 2016; 정병삼, 2025).

기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청소년의 진로교육이 2010년 이후로 꾸준히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이 추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다. 특히 진로교육의 유형이나 교육과정의 성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성과에 대한 연구는 적으며, 진로교육 발전과정에 따른 비교 및 분석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둘째,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취업 여부 등 단편적으로 살펴왔다.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는 고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 청소년 진로 관련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연구 결과가 없다. 임현정 외(2015)의 연구는 청소년이 대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진로교육 경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도, 일부 선행연구는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노법래, 2013; 이자형, 2015). 이에 본 연구는 직업계고를 졸업 후 20세부터 25세까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수행한 진로교육과 가구배경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직업계고교생의 청소년기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청소년기의 가구배경과 성장배경뿐만 아니라 이후 청년기의 경제활동 상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코호트 비교에 유용하다. 1차 웨이브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 코호트 2,000명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코호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 웨이브는 2016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5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17세를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직업계고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18세 전후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므로, 1차 웨이브에서는 최초 조사 당시 18세였던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대신 3차 조사(2006년)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코호트를 활용하였다. 2차 웨이브에서는 1차 조사(2016년) 당시 17세였던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웨이브의 중학교 3학년 코호트 중 전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3차 자료(2006년)와 6~11차 자료(2009~2014년)를 분석하였으며, 2차 웨이브의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 중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자료(2016년)와 3~8차 자료(2019~2024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코호트의 17세 시점 가구배경과 진로교육 경험이 20세부터 25세까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본 연구는 20세부터 25세까지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패널 유실(panel attrition)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결측을 허용한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남성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청년기는 결혼이라는 생애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로 원가구와 분가하면서 패널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총 6번의 조사 데이터 중 33%의 결측(2번의 결측)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문고 학생 1차 웨이브 368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2차 웨이브 2,691명 중 결측 2번을 허용하여 1차 웨이브 295명, 2차 웨이브 2,160명이 되었다. 둘째, 분석기간 내내 미취업자라면 모든 분석 자료에서 노동시장 성과 및 직업적응이 결측치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관측기간 동안의 미취업 상태가 개인의 선호나 학업 등의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면 주요 변수에 내생성 문제를 초래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1차 웨이브는 43명이 제외되어 252명, 2차 웨이브는 171명이 제외되어 1,989명이 되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활용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이 개선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인 질적 성과의 변화 궤적을 모델링하기 위함이다. 또한, 진로교육과 가구배경에 따른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다양한 성장함수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측정된 변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토대로 반복 측정된 종단자료 및 패널자료의 초깃값과 변화량(기울기)을 추정할 수 있다(Hardy & Thiels, 2009; Duncan et al., 2013). 본 연구에서의 잠재성장모형 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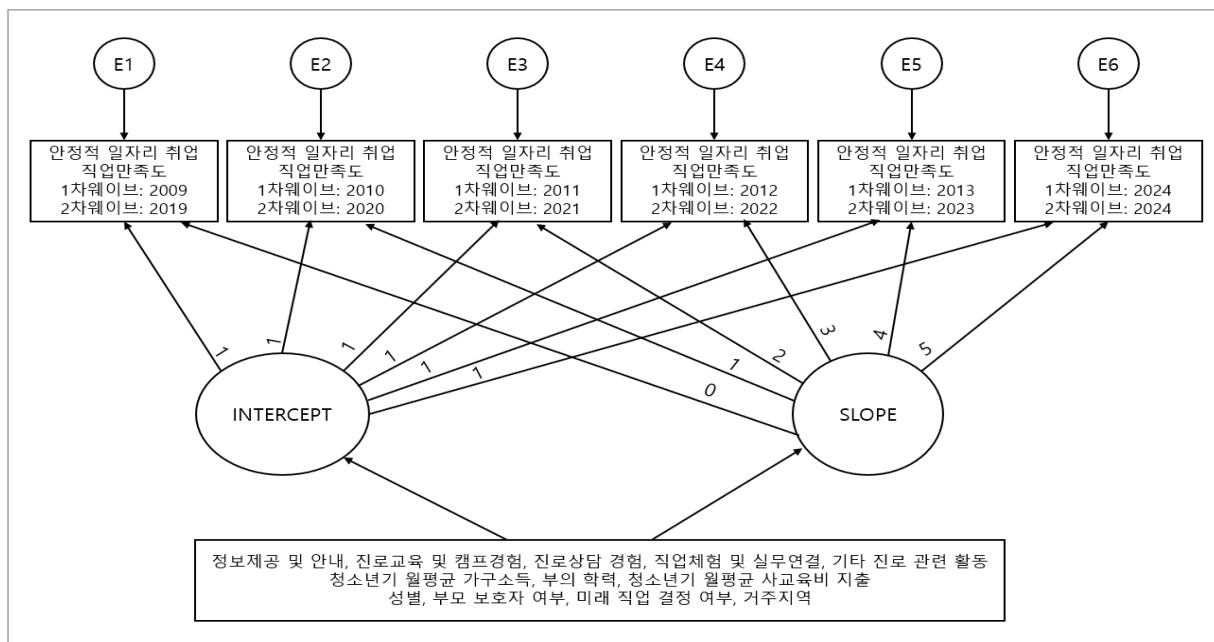
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lambda_i \beta + \epsilon_i$$

1차년도 : $y_{i1} = \alpha + \lambda_{i0} \beta + \epsilon_{i1}$
 2차년도 : $y_{i2} = \alpha + \lambda_{i1} \beta + \epsilon_{i2}$
 3차년도 : $y_{i3} = \alpha + \lambda_{i2} \beta + \epsilon_{i3}$
 4차년도 : $y_{i4} = \alpha + \lambda_{i3} \beta + \epsilon_{i4}$
 5차년도 : $y_{i5} = \alpha + \lambda_{i4} \beta + \epsilon_{i5}$
 6차년도 : $y_{i6} = \alpha + \lambda_{i5} \beta + \epsilon_{i6}$

반복 측정된 변수인 안정적 일자리 취업 여부 및 직업적응에 대하여 α (Intercept)는 초깃값을, λ 는 각 차수의 기본 수치이고, β (Slope)는 변화율을 나타내며, ϵ_i 는 관찰되지 않은 측정오차이다. 이를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잠재성장모형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변인별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무성장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인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결측치 처리를 위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Enders & Bandalos, 2001). 더불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TLI, CFI, RMSEA¹⁾를 살펴보았다. 보통 TLI와 CFI는 .90 이상이고 RMSEA는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여겨진다(Xia & Yang, 2019).

1)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는 기저모형 대비 제안모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대체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충분적합도 지수이며(Marsh et al., 1988,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이 모집단 공분산 구조를 얼마나 근사하게 재현하는지를 나타내는 절대적합도 지수로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Steiger & Lind, 1980; Browne & Cudeck, 1993).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청년기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

본 연구는 청년기 안정적 일자리 취업을 측정하기 위하여 백승호(2014), 이승윤 외(2017)의 불안정 노동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은 정규고용, 사회보험, 임금의 세 가지 지표로 측정하였으며, 정규고용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은 1, 비정규직은 0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근로자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1, 그 외는 0으로 설정하였다(이승윤 외, 2017). 사회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된 경우 1, 그 외는 0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정의하는 저임금 기준 측정 방식인 시간당 중위임금 2/3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이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당 중위임금 2/3을 적용하였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규고용, 사회보험, 임금이 모두 안정적인 경우 4, 하나라도 불안정하다면 3, 하나만 안정적이라면 2, 모두 불안정하다면 1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특히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무급가족종사자는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된다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직업적응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전공일치도, 업무만족도, 전반적 직업만족도(근무환경 만족도, 근무시간 만족도, 의사소통/인간관계 만족도의 평균값)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 일자리의 정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안정적 일자리의 정의

구분	정규고용	사회보험	임금
임금근로자	정규직	건강보험 가입	시간당 중위임금 2/3 이상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4대보험 모두 가입	
무급가족종사자			해당없음

나. 청년기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 및 직업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잠재성장모형의 변인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변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우선 1차 웨이브에서는 청소년기 진로교육이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진로 관련 강연 경험, 학교 및 학과 안내 경험, 진로 관련 검사 경험, 직업체험 경험, 진로상담 경험으로 조사되었다. 2차 웨이브에서는 취업상담, 채용 기업 정보 제공 경험, 구직활동 지도, 취업 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취업캠프 경험, 졸업생 멘토링, 취업처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1차 웨이브와 2차 웨이브에서 조사된 청소년기 진로경험 및 활동경험의 변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구분 기준(송선혜 외, 2021; 김수진, 이보미, 2023)과 유사한 특성의 진로교육 변수를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나의 변수 내에 두 개의 진로 관련 활동이 포함된다면 변수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전공일치도, 업무만족도, 전반적 직업만족도(근무환경 만족도, 근무시간 만족도, 의사소통/인간관계 만족도의 평균)의 평균을 투입하였다. 더불어 독립변수 중 가구배경으로는 청소년기 가구소득, 부의 학력, 청소년기 사교육비 지출을 투입하였으며, 부의 학력이 결측인 경우 모의 학력으로 대체하였다. 기존의 선행연

구에서는 청소년기 가구소득을 별도의 빈곤선을 설정하여 범주형 변수로 투입하였다(변금선, 2013; 이다윗, 2018; 김태완, 이주미, 2018). 그러나 본 연구가 활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는 1차 코호트의 가구원 수를 조사하지 않아 가구소득을 균등화한 뒤 빈곤선을 설정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의되던 방식과 상이하게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로는 17세 시점에서의 성별, 부모 보호자 여부, 미래 직업 결정 여부, 거주지역을 투입하였다. 부모 보호자 여부는 부모가 모두 보호자인 경우에는 1로, 편부모이거나 부모가 모두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거주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1, 그 외 지역은 0으로 투입하였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정규고용	
종속변수	안정적 일자리 취업	정규고용, 사회보험, 임금 모두 충족=4, 하나라도 미충족한 경우=3, 하나만 충족한 경우 2,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1
	직업적응	전공일치도, 업무만족도, 전반적 직업만족도(근무환경 만족도, 근무시간 만족도, 의사소통/인간관계 만족도의 평균)의 평균
독립변수	정보제공 및 안내	1차 코호트: 학교 및 학과 안내 경험 2차 코호트: 채용기업 정보 제공 경험
	진로교육 및 캠프경험	1차 코호트: 진로 관련 강연 경험,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2차 코호트: 취업캠프 경험
	진로상담 경험	1차 코호트: 진로상담 경험 2차 코호트: 취업상담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1차 코호트: 직업체험 경험 2차 코호트: 구직활동 지도, 취업처 연계
	기타 진로 관련 활동	1차 코호트: 진로 관련 검사 경험 2차 코호트: 취업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졸업생 멘토링
	청소년기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소득의 로그값(연속형 변수)
	부의 학력	부의 학력, 결측 시 모의 학력으로 대체 중학교 졸업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전문대졸 이상=3
	청소년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비 지출의 로그값(연속형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통제변수	부모 보호자 여부	부모 모두 보호자인 경우=1, 그 외=0
	미래 직업 결정 여부	결정=1, 미결정=0
	거주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1, 그 외=0

IV.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1차 코호트에 비하여 2차 코호트에서 진로교육 경험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활동 참여자가 15.5%에서 71.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진로교육법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참여와 체험 위주의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직업체계의 진로교육 방식의 변화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정보제공 및 안내 활동 참여자 역시 38.5%에서 65.6%로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진로상담 경험 참여자도 37.7%에서 58.0%로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 맞춤형 진로지도에 대한 정책적 강조와 진로교육의 전문성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기타 진로 관련 활동은 75.8%에서 77.9%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진로교육 및 캠프경험은 52.4%에서 30.4%로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회성 캠프 형태의 진로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소년기 가구배경에서 1차 코호트의 청소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200.08만원(SD=144.29만원), 2차 코호트는 평균 413.47만원(SD=246.36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은 1차 코호트에서 고등학교 졸업 54.1%, 중학교 졸업 이하 38.9%, 대학교 졸업 이상 7.0% 순으로 나타난 반면, 2차 코호트에서 고등학교 졸업 62.6%, 대학교 졸업 이상 31.2%, 중학교 졸업 이하 6.2%로 전반적인 부의 학력이 높아졌다. 반면 청소년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차 코호트에서 평균 5.81만원(SD=13.67만원), 2차 코호트에서는 평균 14.39만원(SD=22.03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7)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26.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은 1차 코호트 남성 45.6%, 여성 54.4%였고, 2차 코호트에서는 남성 63.8%, 여성 36.3%로 나타났다. 부모 보호자 여부에서 부모 모두 보호자인 경우 1차 코호트에서 78.2%, 2차 코호트에서는 82.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에 미래 직업을 결정한 고교생은 1차 코호트 42.1%, 2차 코호트 62.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1차 코호트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고교생 40.1%, 2차 코호트에서는 41.2%이었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
정보제공 및 안내	경험	97(38.5)	1,304(65.6)
	미경험	155(61.5)	685(34.4)
진로교육 및 캠프경험	경험	132(52.4)	604(30.4)
	미경험	120(47.6)	1,385(69.6)
진로상담 경험	경험	95(37.7)	1,154(58.0)
	미경험	157(62.3)	835(42.0)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경험	37(15.5)	1,424(71.6)
	미경험	213(84.5)	565(28.4)
기타 진로 관련 활동	경험	191(75.8)	1,549(77.9)
	미경험	61(24.2)	440(22.1)
청소년기 가구소득(평균, 표준편차)(단위: 만원)		200.08(144.29)	413.47(246.36)
부의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95(38.9)	121(6.2)
	고등학교 졸업	132(54.1)	1,227(62.6)
	대학교 졸업 이상	17(7.0)	612(31.2)
청소년기 사교육비 지출(평균, 표준편차)		5.81(13.67)	14.39(22.03)
성별	남성	115(45.6)	1,268(63.8)
	여성	137(54.4)	721(36.3)
부모 보호자 여부	부모 모두 보호자	197(78.2)	1,647(82.8)
	그 외	55(21.8)	342(17.2)
미래 직업 결정 여부	결정	106(42.1)	1,237(62.2)
	미결정	146(57.9)	752(37.8)
거주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101(40.1)	819(41.2)
	그 외	151(59.9)	1,170(58.8)
계		252(100)	1,989(100)

2. 청년 초기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 변화 양상 탐색

본 연구에서는 1차 코호트와 2차 코호트 각각의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정적 일자리 취업의 경우, 1차 코호트는 TLI와 CFI가 각각 0.978, 0.990으로 나타나 무변화 성장모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MSEA는 0.025로 무변화 성장모형보다 낮게 나타나 적합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적응은 1차 선형모형이 TLI와 CFI의 기준인 0.9 이상, RMSEA 기준인 0.08 이하에 적합하지는 않았으나, 무변화 성장모형보다 적합하게 나타나 이를 선택하였다(Preacher, 2008; Duncan et al., 2013). 한편, 2차 코호트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 모두 무변화 성장모형보다 선형 성장모형의 TLI, CFI, RMSEA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차 및 2차 코호트 모두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일차 선형 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4.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구분			χ^2	df	TLI	CFI	RMSEA
코호트	청년초기 노동시장성과	성장모형					
1차 코호트	안정적 일자리 취업	무변화	20.34*	9	0.819	0.891	0.071
		선형	8.07	7	0.978	0.990	0.025
	직업적응	무변화	28.76***	9	0.807	0.884	0.094
		선형	25.07**	7	0.809	0.989	0.093
2차 코호트	안정적 일자리 취업	무변화	63.59***	9	0.950	0.970	0.055
		선형	14.73*	7	0.991	0.996	0.024
	직업적응	무변화	30.93***	9	0.973	0.984	0.035
		선형	10.74	7	0.994	0.997	0.016

* $p<.05$, ** $p<.01$, *** $p<.001$.

3. 잠재성장모형 추정 결과

안정적 일자리 취업을 종속변수로 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청소년기 진로교육에서 1차 코호트의 경우 정보제공 및 안내가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변화율은 정(+)적 영향을 보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코호트의 정보제공 및 안내가 학교 및 학과 안내 경험으로 조작적 정의되었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진로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이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더불어 기타로 분류되었던 진로 관련 검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안정적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관련 검사를 통해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2차 코호트의 경우, 정보제공 및 안내,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기타(취업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졸업생 멘토링)가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이덕현 외, 2014; 송선훈 외, 2021). 1차에 비하여 2차 코호트에서 다양한 진로교육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정적 영향을 보인 것은 취업 중심의 진로교육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프로그램은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박람회나 졸업생 멘토링은 구체적인 취업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취업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1차 코호트 때는 진로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학습자 역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진로교육의 성과가 부진하였을 수도 있다. 이 외에 1차 및 2차 코호트 모두 정규 교육활동 및 캠프경험과 진로상담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강순희, 2013; 송선훈 외, 2021).

한편 청소년기 가구배경 중 1차 코호트에서는 청소년기 가구소득, 부의 학력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2차 코호트의 경우, 청소년기 가구소득, 부의 학력, 청소년기 사교육비 지출이 모두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특히 청소년기 가구소득의 경우 변화율이 정(+)적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가구배경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이자형, 연보라, 2012; 변금선, 2013; 이다윗, 2018; 최천근, 김복태, 2021; 김덕호, 2021). 그러나 사교육을 받을수록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 취업의 가능성이 낮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김지효, 2018). 이는 직업계고 청소년의 사교육비 지출이 대학 진학 준비에만 한정되기보다,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 진로개발역량 제고 등 노동시장 진입과 연계된 준비를 일부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노경란, 허선주, 2021; 류지은, 서예린, 2023). 또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이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교 경험,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지출은 취업준비 자원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2차 코호트에서 청소년기 가구소득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 경제적 격차가 청년기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되어 더욱 벌어짐을 의미한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자원이 지속적인 인적자본 투자와 취업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 가구배경이 일회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청년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계변수에서 성별은 2차 코호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여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 부모 보호자 여부와 거주지역은 2차 코호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표 5. 잠재성장모형 추정결과(안정적 일자리 취업)

구분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		
		추정계수	표준오차	C.R.	추정계수	표준오차	C.R.
정보제공 및 안내	초기치	-0.400*	0.193	-2.078	0.268***	0.057	4.704
	변화율	0.13**	0.044	2.601	-0.021	0.013	1.619
정규 교육활동 및 캠프 경험	초기치	0.388	0.239	1.622	-0.008	0.055	-0.145
	변화율	-0.04	0.056	-0.427	0.009	0.013	0.683
진로상담경험	초기치	0.087	0.178	0.490	0.041	0.050	0.823
	변화율	0.042	0.041	1.035	0.012	0.012	1.065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초기치	0.369	0.225	1.637	0.358***	0.077	4.618
	변화율	-0.045	0.052	-0.860	-0.025	0.018	-1.377
기타	초기치	0.422*	0.209	2.017	0.215**	0.068	3.152
	변화율	-0.003	0.049	-0.065	-0.026	0.016	-1.654
청소년기 가구소득	초기치	0.237***	0.09	4.826	0.129***	0.016	8.111
	변화율	0.008	0.012	0.718	0.011**	0.003	3.112
부의 학력	초기치	0.629***	0.125	5.048	0.373***	0.040	9.372
	변화율	-0.011	0.029	-0.369	-0.005	0.009	-0.539
청소년기 사교육비 지출	초기치	-0.042	0.065	-0.646	0.303***	0.024	12.435

구분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		
		추정계수	표준오차	C.R.	추정계수	표준오차	C.R.
성별	변화율	-0.020	0.015	-1.339	0.004	0.006	0.688
	초기치	0.022	0.173	0.129	0.151**	0.049	3.101
	변화율	0.037	0.040	0.925	-0.002	0.011	-0.139
부모 보호자 여부	초기치	0.140	0.199	0.702	0.251***	0.062	4.037
	변화율	0.049	0.046	1.059	-0.010	0.014	-0.711
청소년기 미래직업 결정 여부	초기치	0.148	0.168	0.882	0.045	0.050	0.910
	변화율	-0.014	0.038	-0.355	0.017	0.012	1.512
거주지역	초기치	0.106	0.166	0.636	0.098*	0.047	2.086
	변화율	-0.048	0.038	-1.283	-0.013	0.011	-1.168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직업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청소년기 진로교육에서 1차 코호트의 경우 기타 진로 관련 활동에 포함된 진로 관련 검사 경험이 직업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Messersmith et al., 2008). 반면 2차 코호트의 경우,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기타(취업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졸업생 멘토링)가 직업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는 실제 직무 환경에 대한 사전 노출을 통해 현실적인 직업 기대치가 형성되어 입사 후 직무와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변화율이 부(-)적 영향을 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점차 감소되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 경험이 축적되면서 초기 체험 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유추된다. 이 외에 정보제공 및 안내나 정규 교육활동 및 캠프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진로 관련 교과나 특강, 강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였다(전은정, 최윤정, 2023).

한편 청소년기 가구배경 중 1차 코호트에서는 청소년기 가구소득이 직업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변화율은 정(+)적 영향을 보여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2차 코호트 역시 청소년기 가구소득이 직업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변화율도 정(+)적 영향을 보였다. 더불어 부의 학력, 청소년기 사교육비 지출이 모두 직업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여 1차 코호트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차 및 2차 코호트 모두 청소년기 가구소득이 직업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경제적 자본이 직업 선택의 자율성과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부의 학력과 사교육비 지출이 추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을 말미암아 가구배경에 따른 직업적응 격차가 1차 코호트보다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 부모 보호자 여부와 거주지역은 2차 코호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더불어 1차 코호트와 2차 코호트 모두 미래 직업을 결정할수록 직업적응이 높아졌다. 이는 진로 계획의 명확성이 직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이수용 외, 2016; 정병삼, 2025).

표 6. 잠재성장모형 추정결과(직업적응)

구분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		
		추정계수	표준오차	C.R.	추정계수	표준오차	C.R.
정보제공 및 안내	초기치	-0.059	0.033	-1.825	0.012	0.011	1.104
	변화율	0.016*	0.008	1.973	0.001	0.003	0.436
정규 교육활동 및 캠프 경험	초기치	0.073	0.041	1.772	-0.002	0.011	-0.177
	변화율	0.000	0.010	-0.009	0.004	0.003	1.590
진로상담경험	초기치	0.028	0.030	0.909	-0.008	0.010	-0.869
	변화율	0.009	0.007	1.181	0.006**	0.002	2.793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초기치	0.021	0.038	0.539	0.063***	0.015	4.231
	변화율	-0.022*	0.010	-2.231	-0.009*	0.004	-2.455
기타	초기치	0.084*	0.035	2.380	0.043**	0.013	3.280
	변화율	-0.003	0.009	-0.387	-0.005	0.003	-1.570
청소년기 가구소득	초기치	0.042***	0.008	4.977	0.024***	0.003	7.769
	변화율	0.000***	0.002	-0.041	0.002*	0.001	2.394
부의 학력	초기치	0.124	0.021	5.850	0.069***	0.008	9.135
	변화율	-0.005	0.005	-0.970	-0.001	0.002	-0.643
청소년기 사교육비 지출	초기치	-0.005	0.011	-0.451	0.063***	0.005	13.931
	변화율	-0.004	0.003	-1.387	0.001	0.001	0.757
성별	초기치	-0.008	0.030	-0.258	0.016	0.009	1.704
	변화율	0.014	0.007	1.913	-0.001	0.002	-0.366
부모 보호자 여부	초기치	0.062	0.034	1.850	0.033**	0.012	2.781
	변화율	-0.002	0.008	-0.197	-0.001	0.003	-0.201
청소년기 미래직업 결정 여부	초기치	0.083**	0.029	2.889	0.052***	0.010	5.402
	변화율	-0.010	0.007	-1.360	-0.005*	0.002	-2.406
거주지역	초기치	-0.040	0.028	-1.431	0.017	0.009	1.894
	변화율	0.011	0.007	1.610	-0.002	0.002	-0.785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진로교육법 등을 통해 확대되어 온 직업계고 진로교육과 청소년기 가구배경이 향후 청년 초기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1차 코호트 조사와 2차 코호트 조사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 및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코호트에 비해 2차 코호트에서 정보제공 및 안내,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취업박람회 등 보다 다양한 진로교육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교육 정책의 발전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차 및 2차 코호트 모두 이론 중심 교육이나 일방향적 상담보다는 직업체험, 구직활동 지도, 취업처 연계, 취업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등 직업계고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 활동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기 가구소득, 부의 학력, 사교육비 지출 등 가구배경 요인들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2차 코호트에서는 가구배경 요인의 영향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직업계고 청소년의 취업 현황을 조사하여 학교로 하여금 당장의 취업률을 우선하게 하는 여건 속에서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낮은 직업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게 하고, 직업적응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구직활동 지도와 취업처 연계가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긍정적이었다. 이는 직업계고 출신 청년의 전공과 적성에 적합하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킬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합한 산업과 직군에 취업하도록 지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송선훈 외, 2021). 구직활동 지도와 취업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 학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교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계고에서는 교사와 취업지원관이 협동하여 학생의 구직활동과 취업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산업 동향 교육과 기업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노동시장 정보와 실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차원에서는 구직활동을 지도하고 취업처를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직업계고에 학교공간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로 및 취업지도 전용 공간을 신설하여 개인별 진로상담과 취업 준비를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진로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구직활동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지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효과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활동 내용과 운영의 실질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학생의 진로계획과 학교 유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김영식, 이호준, 2022; 류지은, 서예린, 2023).

둘째, 직업계고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전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차 코호트에서 취업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졸업생 멘토링 등 직업계고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참여형 활동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직업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기업-학교 연계 멘토링 시스템 구축, 취업박람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직업계고 청소년들이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합동으로 마련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2021)에 따르면,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91.4%가 30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이고, 5인 미만 기업도 14.9%에 달해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을 학습이 아닌 근로 및 취업으로 인식하는 기업의 관행이 학생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안재영, 2022). 따라서 산학협력 기반의 참여형 진로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학교, 기업, 정부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말미암아, 1차 코호트에서는 가구배경 요인 중 오직 가구소득만 안정적 일자리 취업 및 높은 직업적응에 유의하였으나, 2차 코호트에서는 가구소득과 더불어 부의 학력과 사교육비 지출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과거보다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배경이 향후 청년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안정적 일자리 및 직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활동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 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교육기간 동안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월 60만원의 훈련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당장의 생계와 취업이 급하여 월 6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추가적인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교재비, 실습비 등의 부대비용까

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2차 코호트에서 나타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불평등 양상을 고려할 때, 단순한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넘어 취업의 질과 직업적응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형평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1차 및 2차 코호트의 동질성 확보가 어렵다.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향점수매칭 등의 방법을 실시하나, 1차 코호트 분석대상이 300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성향점수매칭 실시가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한 이후 이중차분법, 고정효과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겠다. 둘째, 1차 및 2차 코호트의 진로교육을 동일한 변수로 측정하지 않았고, 유사한 특성을 토대로 구분하여 조작적 정의하였기 때문에 변수 구분이 작위적이다. 이 외에도 두 코호트는 표본 크기, 조사 시기 등이 동일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직업계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가구배경의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거나 이미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분석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구배경 관련 결과는 직업계고 내에서 가구배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교 유형 전반에 걸친 가구배경의 효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청소년기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지 못하고,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다. 비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 취업을 선택하는 직업계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상황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호트 비교를 통해 그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진로교육법 등을 통해 추진된 진로교육 정책의 양적·질적 확대와 발전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했음에도 공교육 진로교육의 효과가 존재하였음을 밝혔다. 더불어 2차 코호트에서 나타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증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론에서 체험 및 실무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학교-기업 간 연계 강화 등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진로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현옥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중년기 고용의 질이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영향(2025)”, “청소년기 가구빈곤 경험이 청년기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2025)”, “지방소멸위험지역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질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2025)”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고용의 질, 빈곤, 불평등, 소득보장정책 등이다.

(E-mail: hoj0208@naver.com)

김지민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노인, 빈곤, 전달체계이며, 현재 노인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AI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dowoon@yonsei.ac.kr)

참고문헌

- 강순희. (201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91-123. <http://doi.org/10.22914/jlp.2013.13.3.004>
- 교육부, 고용노동부. (2026). 2026년, 우리는 국가기술자격을 타고 이륙(離陸, 26)한다!
- 김덕호. (2021).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진학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35(2), 85-112. <https://doi.org/10.15843/kpapr.35.2.2021.6.85>
- 김민경, 방혜진, 이진솔, 문찬주. (2023). 진로교육의 성과 분석: 학생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성남, 하재영. (2018).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진로교육연구*, 31(4), 89-111. <http://doi.org/10.32341/jcer.2018.12.31.4.89>
- 김수진, 이보미. (2023).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지원 만족도 유형과 취업성과 간 관계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6(2), 33-61. <https://doi.org/10.36907/krivet.2023.26.2.33>
- 김영식, 이호준. (2022).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이 고교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자료]. KRIVET 패널 학술대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지효. (2018).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도별 비교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8(3), 1-20. <https://doi.org/10.35273/jec.2018.8.3.001>
- 김태완, 이주미. (2018). 아동빈곤 경험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 41-66).
- 남미자, 김희연, 이수지, 이주영. (2013).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직업능력개발연구*, 16(3), 29-57. <https://doi.org/10.36907/krivet.2013.16.3.29>
- 남재욱. (202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8(1), 133-160. <http://doi.org/10.17000/kspr.28.1.202103.133>
- 노경란, 허선주. (2013). 특성화고 졸업자의 재학 중 교육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 *중등교육연구*, 61(3), 583-606. <http://doi.org/10.25152/ser.2013.61.3.583>
- 노경란, 허선주. (202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참여특성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교 진로교육과 진로사교육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2), 47-67. <http://doi.org/10.32341/jcer.2021.6.34.2.47>
- 노법래. (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중단연구: 경제적 불안정과 여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171-193.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http://doi.org/10.15855/swp.2012.39.4.109>
- 도윤미, 김귀훈. (2024).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의 취업 진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7(8), 75-84. <http://doi.org/10.32431/kace.2024.27.8.006>
- 류지은, 서예린. (2023). 마이스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26(2), 93-125. <http://doi.org/10.36907/krivet.2023.26.2.93>
- 박가열. (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http://doi.org/10.17000/kspr.21.2.201406.57>
- 백예은, 정혜원. (2025).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로이행과정 유형 및 주요 예측 변인 탐색: 시퀀스 분석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조사연구*, 26(2), 21-60. <http://doi.org/10.20997/sr.26.2.2>
- 반정호. (2013).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코호트분석. *KLI 고용-노동 리포트*, 통권 제38호 한국노동연구원.
- 변금선. (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345-373. <http://doi.org/10.15855/swp.2013.40.4.345>

- 송선혜, 유한구, 이영석. (2021). 직업계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1(3), 115-142. <http://doi.org/10.22914/jlp.2021.21.3.005>
- 신윤범, 원효현. (2024). 직업계고 졸업자의 직무만족도 프로파일 분류 및 예측 요인 탐색: 교육 요인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6(6), 1282-1293. <http://doi.org/10.13000/jfmse.2024.12.36.6.1282>
- 안재영. (2022).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학습으로의 전환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직업교육연구*, 41(2), 83-104. <https://doi.org/10.37210/JVER.2022.41.2.83>
- 안재영. (2023). 산업화에 따른 직업계고등학교의 변천 과정 탐색.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8(2), 18-32. <https://doi.org/10.35140/kiiedu.2023.48.2.18>
- 안주엽, 오선정, 최세림. (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1). *정책연구* 2019-25. 한국노동연구원.
- 안준기. (2009). 어학연수가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7(2), 203-231.
- 오선정. (2017).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7-01. 한국노동연구원.
- 원지영. (2019). 가구 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638-649.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638>
- 윤형한, 신동준. (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The HRD Review*, 15(1), 36-63.
- 유재은. (2018).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한구, 박화춘. (2021).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다윗. (2018). 아동기 빈곤과 노동시장 성취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덕현, 박지혜, 진유림, 장원섭. (2014). 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이 고졸 청년층의 취업성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교육연구*, 28, 1-20.
- 이만기. (2014). 특성화고 고졸청년층의 진로준비 및 진로성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8), 4961-4971. <https://doi.org/10.5762/KAIS.2014.15.8.4961>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수용, 이은수, 홍세희. (2016). 청년기 진로발달 변화형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원 성장 혼합 모형(Two-part Growth Mixture Model)의 적용. *직업능력개발연구*, 19(3), 137-162. <https://doi.org/10.36907/krivet.2016.19.3.137>
- 이자형. (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중단적 분석: 진로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이자형, 연보라. (2012). 전공계열에 따른 대졸자 노동시장성과의 결정요인: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4), 199-226. <https://doi.org/10.32465/ksocio.2012.22.4.008>
- 이혜영, 강순희. (2020). 대졸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택동기가 첫 일자리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직장에서의 욕구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0(4), 147-170. <https://doi.org/10.35273/jec.2020.10.4.007>
- 임현정, 김양분, 김난옥. (2015). 대학 입학전후 진로성숙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직업능력개발연구*, 18(3), 27-56. <https://doi.org/10.36907/krivet.2015.18.3.27>
- 장효진. (2017). 직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6(3), 203-237.
- 전은정, 최윤정. (2023).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로활동과 일자리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학 만족도의 매개효과. *교육비평*, (51), 393-424. <https://doi.org/10.23119/er.2023..51.393>
- 전유정, 신원식. (2019). 신입 사회복지사들의 직업가치 인식과 직업적응. *사회과학연구*, 35(4), 127-152. <http://doi.org/10.18859/ssrr.2019.11.35.4.127>
- 전정은. (2025).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 *KLI 패널브리프*, 2025-2. 한국노동연구원.
- 정병삼. (2025).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에 대한 교육 관련 영향 요인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8(1), 159-183. <http://doi.org/10.29221/jce.2025.28.1.159>

- 정세정. (2019). 분절 노동시장과 남성 청년: 대학졸업 후 안정적 일자리로의 첫 진입. *사회과학연구*, 26(4), 143-171. <http://doi.org/10.46415/jss.2019.12.26.4.143>
- 최동선, 이종범. (2013).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교육연구*, 32(1), 1-21.
- 최동선, 정재호. (2014). 고교 직업교육기관 졸업자 건강·고용보험 DB 연계 취업을 분석.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천근, 김복태. (2021).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부의 대물림: 부모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자녀교육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정관리연구*, 16(3), 257-277. <http://doi.org/10.16973/jgs.2021.16.3.009>
- 통계청. (2017).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 현옥주, 변금선. (2025). 청소년기 가구빈곤 경험이 청년기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졸업 후 초기 임금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5(4), 578-599. <http://doi.org/10.15709/hswr.2025.45.4.578>
- 홍서연, 안주엽. (2002). 청년의 학교 졸업후 구직기간의 분석. *노동정책연구*, 2(1), 19-46.
- 황성수, 김재호. (2015). 부모소득이 청년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doi.org/10.1037/0003-066X.55.5.469>
- Batool, S. S., & Ghayas, S. (2020). Process of career identity formation among adolescents: components and factors. *Heliyon*, 6(9). <http://doi.org/10.1016/j.heliyon.2020.e04905>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http://doi.org/10.1037/0033-2909.107.2.238>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http://doi.org/10.2307/160238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Sage.
- Danziger, S., & Ratner, D. (2010). Labor market outcome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133-158. <https://doi.org/10.1353/foc.0.0041>
-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 (2013).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2nd ed.). Routledge. <http://doi.org/10.4324/9780203879962>
- Elder, G. H. Jr.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http://doi.org/10.1111/j.1467-8624.1998.tb06128.x>
- Enders, C. K., &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430-457.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803_5
- Greene, K. M., Lee, B., Constance, N., & Hynes, K. (2013). Examining youth and program predictors of engagement in out-of-school time progra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10), 1557-1572. <http://doi.org/10.1007/s10964-012-9814-3>
- Hardy, S. A., & Thiels, C. (2009).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 clinical treatment research: An example comparing guided self-change an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reatments for bulim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9(1), 51-71.
- Hollingshead, A. B. (1949). *Elmstown's youth: The impact of social classes on adolescents*.
- Hu, Q., Taris, T. W., Dollard, M. F., & Schaufeli, W. B. (2020). An exploration of the component validity of job crafting.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9(5), 776-793. <http://doi.org/10.1080/1359432X.2020.1756262>

- Johnson, R. & Schoeni, R. (2011). The Influence of Early-Life Events on Human Capital, Health Status, and Labor Market Outcomes Over the Life Course.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1(3), 2521. <https://doi.org/10.2202/1935-1682.2521>
-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1-22. <http://doi.org/10.1177/000312240907400101>
- Koçak, A., Rooman, C., Duyck, W., & Derous, E. (2022). Mind the ad: How personality requirements affect older and younger job seekers' job attrac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95(3), 718-737. <http://doi.org/10.1111/joop.12396>
- Kristof, A. L. (1996). Person-organization fit: An integrative review of its conceptualizations,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Personnel Psychology*, 49(1), 1-49. <http://doi.org/10.1111/j.1744-6570.1996.tb01790.x>
- Kroon, B., & Paauwe, J. (2014). Structu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in economically constrained firms: the case of Dutch agricul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4(1), 19-37. <https://doi.org/10.1111/1748-8583.12024>
- Lofquist, L. H., & Dawis, R. V. (1984). Research on work adjustment and satisfaction: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216-237).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91-410.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391>
- Messersmith, E. E., Garrett, J. L., Davis-Kean, P. E., Malanchuk, O., & Eccles, J. S. (2008). Career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hrough emerging adulthood: Insights from information technology occupa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2), 206-227. <https://doi.org/10.1177/0743558407310723>
- Miller, D. C. (1951). Industrial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1), 75.
- Oesch, D. (2003). Labour market trends and the Goldthorpe class schema: A conceptual reassessment. *Swiss Journal of Sociology*, 29(2), 241-262. <http://doi.org/10.5169/seals-814977>
- Preacher, K. J. (2008).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No. 157). Sage. <http://doi.org/10.4135/9781412984737>
- Rodgers, G. (1989). Precarious work in Western Europe: The state of the debate. In G. Rodgers & J. Rodgers (Eds.),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pp. 1-16).
- Steiger, J. H., & Lind, J. C. (1980). *Statistically-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ation].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United States.
- Xia, Y., & Yang, Y. (2019). RMSEA, CFI, and TLI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ordered categorical data: The story they tell depends on the estimation methods. *Behavior Research Methods*, 51(1), 409-428. <http://doi.org/10.3758/s13428-018-1055-2>

The Effects of Household Background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of Vocational High School Adolescents on Early-Career Labor Market Outcomes: A Cohort Comparison and Analysis

Hyeon, Ockju¹ | Kim, Jimin^{2*}

¹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²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Kim, Jimin
(dowoon@yonsei.ac.kr)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background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received by vocational high school adolescents on stable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which are early-career labor market outcomes.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to analyze how household background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received at age 17 by students in two cohorts influenced labor market outcomes during early adulthood (ages 20-25) by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nly experience with career-related assessm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table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in the 1st cohort, whereas in the 2nd cohort, more diverse career education programs—including information provision, work experience and practical workplace connections, job fairs, and graduate mentoring—positively influenced both stable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Second, household income and paternal education level had significant effects on stable employment in the 1st cohort, whereas in the 2nd cohort, household income, paternal education level, and private tutoring expenses al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both stable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enhanced job experience programs with practical work connections, improved future career explor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addressing socioeconomic inequality during adolescence.

Keywords: Vocational High School Adolesc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Household Background, Labor Market Outcome, Latent Growth Modeling